

Merck, 첨단 화장품 원료 선보여...

독일의 의약품 생산기업 Merck가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화장품 원료 전시회 <in-cosmetics 2009>에 참여해 향후 화장품 시장의 유행을 주도할 혁신적인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.

Merck가 선보일 제품은 시장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선케어와 노화방지 제품은 물론 펄 안료 및 기능성 필러 등이다.

<in-cosmetics 2009>에서는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미래에 유행할 화장품 트렌드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.

Merck는 차세대 UV 필터인 <유솔렉스>를 비롯해 사과와 대황을 원료로 사용한 노화방지제 <로나케어>, 와 화장품 산업을 위한 토탈 스킨케어 첨가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.

Merck는 행사에 참가한 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래 화장품 트렌드에 대한 강연과 세미나도 개최한다.

발표 어젠다는 부스 D 700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<in-cosmetics 2009>는 4월21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.

<화학저널 2009/04/08>